# 복음은 예고편보다 완성본이 더 짧다

## (신명기 26:1~19)

16.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음은 예고편보다 완성본이 더 짧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복음은 예고편보다 완성본이 더 짧다'
복음에는 예고편이 있고 완성편이 있는데 완성편이 예고편보다 더 짧습니다. 예고편을 영어로 'trailer film'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 반 영화나 두 시간 심지어 세 시간을 넘는 영화도 있지만 완성된 영화의 예고편은 항상 2~3분을 넘지 않는데, 이렇게 짧은 영상 안에 완성편에 들어있던 장면들 중에서 흥미롭고 자극적인 장면들을 발췌하고 혼합하여 만들게 됩니다. 이 짧은 예고편을 통해서 관객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영화의 주제와 장르가 무엇인지, 주인공이 누구며,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며, 내 취향과 맞는지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예고편은 마케팅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완성편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영화 자체의 장면들에 대해서는 통달이 돼 있어서, 예고편은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흥미롭고 자극적인 장면들을 툭툭 잘라서 만들 것 같지만, 마케팅에 끼치는 큰 영향력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만든다고 합니다. 다 만들어 놓은 영화에서 필름을 발췌해서 2~3분짜리를 만드는 것 치고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고서 붙잡고 있는 복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고편이 있고 완성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5: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고편이었고, 그 예고편을 보고 있는 선민들에게 복음의 완성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을 완성본에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또한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들에서 완성본에 없던 장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실 복음의 예고편인데, 그 시대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 제거하신다면 어떻게 완성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고편 장면들을 완성본 필름에서 제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6절의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자꾸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나오는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고, 내가 선호하는 구절을 발췌하는 데에는 다들 도사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성경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아무 구절이나 잘라서 발췌하고 외우고 다니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예 제쳐놓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웬만한 말씀들은 보통 소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육체의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움직임도 육체의 동작과 똑같은 행위로 보십니다.
상황이 지금 어떠냐하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도 다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선민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쪼개진 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더 혹독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을 보태시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지킬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우리의 처지는 구약에서 제시된 율법도 못 지키는 상황이고, 신약에서는 더욱 심리적 차원까지 강화시키시는데 당신 혼자서 완성만 하시면 되는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가능하지만 우리 같이 죄에 찌든 죄의 장아찌들은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즉 구약과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과 권고와 요청들이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지요.

무려 200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공생애까지를 보탠 것이 다 예고편이었고, 십자가 사건이 완성본이라는 것입니다. 예고편은 2000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완성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반대라도 아주 극심하게 반대입니다.
길게 잡아 두 시간 반이나 세 시간인 영화의 예고편은 고작 2~3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복음의 완성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순간에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짧아도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완성본인데, 이 완성본에 2000년이 걸린 예고편의 장면들이 제거되지 않고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의 시간은 2000년 동안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에 2000년 동안의 모든 예고편의 장면들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본의 영화가 예고편의 장면만 포함하면 안 되는 것처럼, 2000년의 예고편에 있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완성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제사법 등이 있는데 이것을 규례(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계명들이 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법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신 것은 모세 오경과 그 이후의 모든 성경말씀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수많은 내용들, 구약 39권에 들어있는 참으로 다양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십자가로 흘러 들어가는데, 단 하나의 규례나 단 하나의 법도도 십자가를 우회해서 빗겨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명기는 세 개의 모세의 설교를 포함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설교까지는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야기했던 율법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율례와 법도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십자가로 흘러가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구약성경에서 수 없이 이야기된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고 성취할 수 있고 내 삶에서 표현해 낼 수 있게 되는데 아! 이거 신통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대상 앞에서나 반복하는 것으로, 구약 2000년이 넘게 만들어진 예고편의 모든 내용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일뿐더러, 그 이상의 일도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내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을 모든 대상들 앞에서 나타내는 이 하나의 단순한 사건 속에, 구약의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우회해서 비껴가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구약에서 되어 진 이야기 중에 이루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십자가 사건이 완성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된 것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붙잡을 때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것도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소산물(맏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일조에 대한 것으로 제1의 십일조, 제2의 십일조, 제3의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제1의 십일조'는 모든 소산의 십분의 일을 레위인에게 드리면 레위인은 또 거기에서 십일조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2의 십일조'는 축제의 십일조, 감사의 십일조로 십일조를 바친 남은 십분의 구중에서 다시 십분의 일을 떼어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제용, 감사용 제2의 십일조 중에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와 6년째에는 저축을 해두었다가 가난한 객이나 고아나 과부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레위인을 돕는데, 제3의 십일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일조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요약하는 얘기로 대신하는데 이상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내 소산물 중에 맏물을 바치라(제1의 십일조를 드림)'라는 얘기가 하나님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3의 십일조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결국은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다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완성되는 완성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때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산물 중에서 첫 번째(맏물)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선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회당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 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전부였고, 해마다 토지의 소산물을 거둘 때마다 맏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월급이 쥐어지기 전에 아내가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번 돈을 자식에게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돈이 쥐어지기 전에 이미 돈보다도 먼저 자식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의 70~80%는 농사짓는 일인데 농산물이나 가축 중에서 '맏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손에 땅의 소산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시키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것을 손에 쥐든지 간에 그것보다 먼저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먼저 마음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있을 때에 나중에 내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들은 먼저 마음에 들어와 있던 것에 예속되게 되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부모님께 우선 내복을 사드리는 이유는, 부모님이 먼저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마음이 아까움을 느끼게 되어 부모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여자 친구가 들어와 있다면 여자 친구에게 백을 사주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사건을 겪든지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쓰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종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맏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이것을 십자가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복음의 완성본을 바라봅니다. 예고편의 영화를 바라보듯이 복음의 완성본을 순간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에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을 끌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시는데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관계하시듯이 관계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땅을 떠나는 것이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려면 땅을 떠나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3의 십일조를 매개로 사용해서 이웃사랑을 하게 됩니다. 제3의 십일조를 바치면서 신앙고백 하듯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라고 합니다. 이 제3의 십일조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저축하려고 할 때에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상태에서 하지 않았고, 장례식 때에 음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데 왜 갑자기 시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3의 십일조를 부정한 몸으로 떼지도 않고 바치지도 않았고 먹지

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웃사랑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체는 하나님의 의도가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의도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많은 규례가 있고, 이웃사랑에 대한 수많은 법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2000년 동안 예고편으로 만들어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완성본을 내 것으로 삼아서 바라보며 내 죽음이라'고 고백하면,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므로 예수님의 동선이 하나의 서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감정이입이 되어서 주인공이 당하면 내가 당하고, 주인공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성본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내가 동일시될 때에(완성본을 보므로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동일시 될 수밖에 없음) 십자가에서 승천까지의 서클의 반쪽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전의 앞선 공생애 삶의 예수님의 동선이 나머지 서클의 반쪽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을 이룬 사람들에게서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의도로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처럼 문자를 기억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이 되어서, 구약의 문자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나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마치 영화가 완성된 다음에 예고편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편은 10년이 지난 영화일지라도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저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다보면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와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문자들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혹시 잘못 되었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확신에 차서 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맞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구약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말씀을 담지 한 성령자체다.'라고 시작하면서 온갖 이단과 괴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번을 하나님의 의도로 살더라도 101번째에 나의 의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번이면 100번을 조심해야 합니다. 100번 까지 하나님의 의도로 살았어도 101번째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까 조심해야 하는 표준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서클 중의 반쪽인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 과정의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나머지 반쪽 서클을 통해 이웃들을 통해 이러한 일이 나타나야 한다.'고 거울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를 잡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 율법과 계명들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24시간을 촘촘하게 메워갈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이 내게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말과 행동에서 다 지켜지는 경지를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수련을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한 가지만 지속하다보면 이러한 시점이 오고, 이러한 경지에 도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완성된 완성본, 그 순간에 만들어진 완성본만을 바라볼 때에, 2000년간 만들어진 모든 예고편의 장면들이 다 성취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내게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복된 말과 복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욕심쟁이처럼 다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대 가운데 오늘도 오직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